금골산 '무녀 춤추는 형'…예술가 다수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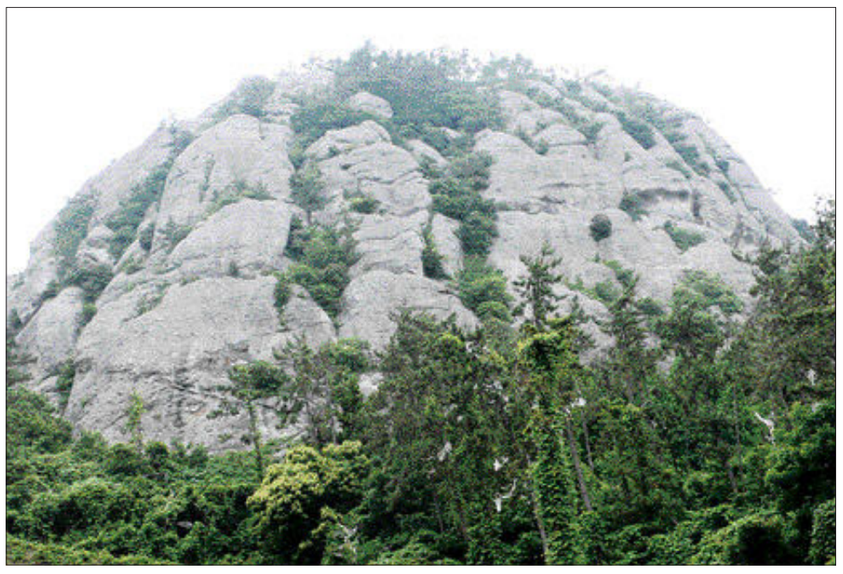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27〉

■ 한을 불사르는 땅, 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도를 예향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주저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다시래기'나 '씻김굿'등과 같은 민속예술의 보고이면서 소치 허유, 의재 허백련, 소전 손재형과 같은 걸출한 화가들을 배출한 고장이기 때문이다.

예술의 근원적인 동력은 한(恨)이다. 인간정신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한이야말로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술정신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속예술의 생성과 창출배경에는 항상 그것이 배태(胚胎)하고 있는 어둡고 깊은 한이 서려있다.

예술의 고장 진도는 한 많은 '삼별초'의 유적지이다. 삼별초의 패전으로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몽고로 끌려간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소리와 몸짓은 곧 진도의 '소리'이고 '춤'이다. 고려 원종 11년(1270년) 삼별초의 대 몽고(蒙古) 항전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진도는 배중손(裵仲孫)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왕족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용장사'를 '행궁'으로 삼아 국호를 '오랑국'이라 선포했다. 자신들이 고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나라임을 주장하면서 고려왕실과 몽고군에 맞서 9개월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흔적이 오늘날 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다.


도암산 정상에 있는 떡시루 모양의 '복부형'은 부귀겸전의 땅이다.

오랑국왕 '온'묘지…손을 얻는 명당

그 가운데 '왕무덤 재'에서 몽고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후에 백성들이 현재의 위치에 안장한 오랑국왕 '온'의 묘는 당시에 장열하게 최후를 마친 장수들의 분묘로 보이는 십여 기의 고총가운데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의신면과 고군면의 경계에 우뚝 솟은 첨찰산이 서진하면서 양미굴근처에 이르러 남쪽으로 전신(轉身)하여 기봉(起峰)한 자계맥(子癸脈)에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묘를 썼다. 손세(孫勢)가 없어 절손지지(絶孫之地)이기는 하지만 사절방(死絶方)인 곤신봉(坤申峰)과 경태봉(庚兌峰)이 수발(秀拔)한데, 이를 이기풍수(理氣風水)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사후에 귀한 이름을 얻는다는 문곡귀인(文曲貴人)이 되는 까닭에 일단 명당의 형국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입향(立向)과 재혈(裁穴)이 합당하고 혈긍이 생기를 얻고 있어서, 자식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제를 올려 감응하면 손을 얻을 수가 있으니 향화(香火)와 사초(莎草)가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다.

오랑국왕 '온'의 묘.

진도의 진산인 금골산은 계골산이라는 미칭(美稱)처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마치 한 많은 혼백을 온 몸으로 끌어안은 무녀가 구음(謳吟)에 맞추어 춤을 추는 형상으로서 그 특이한 모습만큼이나 기괴한 기운으로 뭉쳐있다. 비록 웅장하고 대범한 기상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과 붓으로 상징되는 을목(乙木)의 목체(木體)를 수없이 거느리고 있다. 또 곳곳에 호로(葫蘆)와 상무(翔舞)가 널려있는 까닭에 진도에는 화가와 서예가, 그리고 민속예술가와 무녀들이 한 집 건너마다 태어날 정도로 넘쳐난다. 다만 산과 물과 인심이 메마르고 어두워서 예술가들이 물질에 쉽게 오염되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할 예술가들이 시정잡배나 장사치로 전락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하는 땅이다.

고두산아래 가흥사 근처에 매화꽃 한 송이가 땅에 떨어져있는 모양의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 있는데 대대로 고위관료가 탄생하는 땅이다. 춘산봉 아래의 월평리에 숨어있는 반달형은 귀하기 짝이 없는 동반월(東半月)로서 사신팔장(四神八將)이 혈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얻어 쓰면 천년동안 부귀를 누릴 것이다.

'떡시루형' 도암산 부귀겸전

도암산 정상에 있는 떡시루 모양의 복부형(伏釜形)은 임좌병향(壬坐丙向)에 정미파(丁未破)로 백화(白花·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가 대대로 태어나는 부귀겸전(富貴兼全)의 땅이지만 재혈(裁穴)이 난망하다. 아울러 달마산 아래에 늙은 스님이 염불을 외우는 모양의 노승진념형(老僧眞念形)이 있고, 정자제(亭子堤)근처에 있는 기룡형(起龍形)은 거팔(去八)과 내팔(內八)이 분명하며,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아름답기 짝이 없고 묘를 쓴지 8년 후부터 발복하는 땅이다.

임회면 여귀산(女貴山)아래 국립남도국악원 근처에 있는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은 배고픈 호랑이가 숲을 나서는 모양으로 커다란 석대(石臺)를 의지하고 숨어있는데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이 퇴육사(堆肉砂)로 둥둥 떠 있는 형국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곳은 재산이 먼저 모인 다음에 귀(貴)를 얻는 바닷가의 명당으로 혈성이 기괴하여 대혈 다운 풍모를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창평과 상월정

김병로·송진우선생 등 修學
1905년 창흥의숙으로 개명

〈김경수 원장〉

▲47세 ▲전남대 지리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대 사대부고 교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사 ▲현 향토지리연구소 소장· (사)한국향토문화진흥원 원장

창평은 함평, 남평과 함께 3평 고을로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창평이란 고을 이름부터가 공자가 태어난 산동성 곡부현에 있는 고을이름을 따왔다. 원래 백제 때 굴지(屈支), 신라 때 기양(祈陽)이라 했다가 고려 초에 창평(昌平)이라 했다. 새읍터의 주산인 배뫼도 공자의 탯자리 뒷산인 니구산(尼丘山)을 따와 붙였다.

1914년 담양군에 합병되어 1개 면이 되었지만 역사상 송광사에서 조계종을 일으킨 고려 때 스님 지눌(知訥·1158~210)이 이 고을 청원사에서 대각을 이뤘으며, 조선조에 84명의 문과급제자와 94명의 무과급제자를 내 담양 못지않은 이름을 떨쳤다. 특히 임란 후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고(高)씨들의 터가 되어 본관이 장흥이면서도 '창평고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7호로 지정된 상월정.

창평에 처음 뿌리 내린 장흥고씨는 의병장 고경명의 둘째아들 인후(因 厚 · 1561~592)의 자식들이다. 인후는 의병에 참가했다가 금산전투에서 아버지, 형과 함께 순절한다.

규장각 직각을 지낸 고정주(1863~ 1933)는 창평에 '창흥의숙'이란 서당을 세운다. 여기서 영어·수학에 능통한 이표라는 선생으로부터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1891~1955),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1889~1945),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1891~1955)가 배웠다.

가인은 순창 출신으로 아버지가 창평고씨와 결혼해 외가집에와 공부했고, 13세 때 지실정씨와 결혼해 더욱 창평과 인연이 깊다. 고하는 삼촌이 창평고씨와 혼인해 인연이 됐고, 인촌은 장인이 고정주였다. 고경명이 울산김씨와 결혼해 누대에 겹사돈이 된 셈이다.

이들이 공부한 곳이 상월정(上月亭)이다.

이 곳에는 대자암(大慈庵)이란 절이 있었으나, 조선조에 폐허되었다. 1457년 강원도 감사를 지내다 창평에 와서 살게된 김응교(金應敎)가 상월정을 짓고, 1500년대 손자사위인 이경에 넘어갔다가 손이 끊기면서 외손인 고씨들이 관리했다.

이 곳이 창흥의숙으로 쓰인 연대는 고정주가 직각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1905년부터 1908년 사이로 여겨진다. 이 곳에서 영어를 가르쳤기에 '창평 영의숙'이라고도 한다. 서울의 양정·휘문의숙 같은 시기이며, 광주서석의 전신인 광주보통학교가 사구동에 문을 연 것이 1906년이고, 중학 과정 영어를 가르친 숭일학교가 1907년에 개교한 것을 보면 창평의숙은 전남교육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전라도 방언 (26)

"너무 머시락허지 마씨오"

전라도방언의 어휘 중에는 형태상으로는 표준어(중앙어)와 유사하면서도 실제의 의미는 다른 경우가 있다. '머시락허다'라는 말도 기원적으로는 '멋-이-라-고-허(하)-다'처럼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므로 표준어의 '무엇이라고 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방언에서는 오히려 '꾸짖다, 나무라다, 야단치다'의 뜻으로 쓰인다. "너무 머시락허지 마씨요. 맨 머시락만 헌디 아그덜이 좋아허겄소? 누가 너를 머시락하디?"와 같은 말에서 그 뜻을 확인할 것이다.

'겁나다'라는 낱말도 한자어 '怯(겁낼 겁)'에서 유래한 말이므로 '무섭다'의 의미를 갖지만 방언에서는 이 밖에도 '심한 정도'를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인다. 따라서 '겁나게'는 '굉장히'와 같은 뜻이 되는 한편 '수나 양이 대단히 많다'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물건이 겁나게 쌓였습디다. 비가 겁나게도 많이 오네. 책이 겁나게도 많소잉?"과 같은 표현이 그렇다. '겁도 안 나게'라는 말도 의미상으로는 '무섭지 않다'라는 뜻이어야 할 텐데 도리어 반의적으로 '겁나게'의 뜻을 더욱 강조하는 말이 된다. "올해는 눈도 눈도 겁도 안 나게 왔어라우잉. 사람도 원 겁도 안 나게 모였습디다"와 같은 예가 그렇다.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찔레꽃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산야지나 인가 주변에서 자라며, 키는 2m내외.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그윽한 향기가 있어 화장품 원료로 쓰이며 밀원식물이기도 하다.

/라규채 생태사진가